

# 중소기업 176곳 구조조정... 7년만에 최대

### 금감원 신용위험평가...주력산업 부진에 협력업체 직격탄

### 워크아웃 71곳·법정관리 105곳...1년새 제조업 20곳 늘어

중소기업 176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닥쳤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 된 제조 중소기업이 1년새 20곳이나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들이 조선·전자·자동차 등 주력산업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16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C·D등급)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176곳으로 작년보다 1곳 늘었다. 이 가운데 상장사도 2곳 포함돼 있다. 2011년 77곳이었던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2012년 97곳, 2013년 112곳, 2014년 125곳 등 5년 연속 증가세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 해 3차례나 신용위험평가를 단행해 한계기업을 정리했던 2009년(512곳)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신용위험도는 A~D 네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C·D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올해는 부실 징후가 있지만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 중소기업이 70곳으로 작년보다 1곳 늘었다. 이들 기업은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경영자 구원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퇴출 대상'인 D등급 기업은 105곳으로 작년과 같았다. D등급 기업은 채권은행의 추가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C·D등급 기업이 작년보다 1곳 늘었지만, 신용위험 평가 대상이 된 기업(2035곳)은 100곳 넘게 증가했다. 재무상태가 나빠진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수출 부진과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 71%를 제조업체가 차지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제조 중소기업은 125곳으로 작년보다 20곳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22곳), 전자제품(20곳), 기계장비(19곳) 순서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았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분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년 새 14곳이나 늘었다. 주로 자동차·해상플랜트 등에 들어가는 금속 구조물을 만드는 2차 협력업체들이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면 국내 제조업체들의 매출액은 2014년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 2015년에도 감소했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대기업 매출이 줄어들거나 업황이 안 좋아지면 직격탄을 맞는 곳은 중소기업"이라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 대다수가 부품 제조업체"라고 말했다.

국내 경기 부진으로 유통업(8곳), 부동산업(7곳), 스포츠서비스(5곳) 등 비제조업체들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회원제 골프장 4곳도 여기에 포함됐다.

금감원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접한 지역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광주 전남에도 수출 부진과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구조조정 대상 등급에 포함된 중소기업이 상당수"라며 "취약 산업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구조조정 대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산업군간인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입차 '주춤'

### 11월 1만9361대 등록 전달보다 15.8% 감소

수입차 판매가 '디젤 게이트'로 직격탄을 맞은 아우디·폭스바겐의 영향과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 등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깜짝 실적'을 기록했던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11월에도 각각 5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호실적을 이어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11월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 2만2991대에 비해 15.8% 감소한 1만9361대로 집계됐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등록실적(2만612대)과 비교해서는 6.1% 감소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등록 대수는 20만5162대로 전년 동기(21만9534대)에 비해 6.5% 감소했다.



아기 외출때 따뜻한 우주복으로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유아코너를 찾은 주부가 신생아용 우주복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추운 날씨에 유아용 외출복이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내년 저물가 기조 지속 전망

### KDI "물가상승률 1%대 초반...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1.1~1.4%)에 그쳐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기 위축을 보완하고 물가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국제연구기관이 주장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6일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은 국내

총수요 부진과 함께 대외여건 변화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인 국제유가, 세계 총수요압력, 실효환율, 국내 총수요압력 변화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추정했다. 그 결과 세계 총수요압력이 1% 증가하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약 4분기에 걸쳐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의 낮은 물가상승

률은 주로 대외요인 변화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는 2015년 50%, 올해 20% 내외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0%포인트 내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외 총수요압력 역시 소비자물가를 0.5%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1.4%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물가상승률이 0.1~0.2%포인트 추가 하락하는 영향이 반영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경기 및 물가 하방압력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89.86 (+26.50)
- ↑ 금리 (국고채 3년) 1.74% (+0.01)
- ↑ 코스닥 581.35 (+6.23)
- ↓ 환율 (USD) 1171.40원 (-3.20)

## 중흥주택·송학건설·지오씨·광주신세계 광주상공대상



광주상공회의소는 6일 2016 제4회 광주상공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광주상공대상에는 ▲ 경영우수부문 정창선 (합)중흥주택 회장 ▲ 고용우수부문 김영근 (주)송학건설 대표이사 ▲ 기술혁신부문 박인철 지오씨(주) 대표이사 ▲ 지역공헌부문 임훈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정창선 중흥주택 회장은 지난 1983년 회사 설립 이후 30여년간 주택건설 사업에 매진하며 내실경영을 통해 안정된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투자확대와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됐다.

김영근 송학건설 대표이사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에도 지난해 대비 22% 증가한 고용인원을 유지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은 성과가 인정받았다.

박인철 지오씨 대표이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년 성장세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희망배달마차 후원,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공헌 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백화점 입점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상공대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하는 상으로, 시상식은 오는 9일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우수 회원업체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12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연말연시 금융권 '감원 한파'

### 은행·보험사 희망·명예퇴직 접수...카드사는 조용

몇 년째 연말·연초에 불어온 금융권의 '감원 칼바람'이 올해도 여김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과 내년 초에는 은행권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희망퇴직·명예퇴직 바람이 계속되는 반면, 카드사는 삭풍에서 한 걸음 빗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종은행은 연말이 희망퇴직을 시행하거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노조에 제안했다.

지난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한 SC제일은행도 올 연말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이 내년 초 임금피크제 도입을 대안으로, 우리은행이 내년 3월경 통상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 직원 수는 13만2170명으로 2008년 말(13만990명)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내려갔다.

2014~2015년 3000명 넘는 인력이 줄어든 보험업계에서도 여럿부터 재개된 인력 감축 행진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AIA생명도 지난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고,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농협생명도 농협손해보험도 지난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상시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실적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양호하고 카드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감원 한파에서 빗겨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욕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